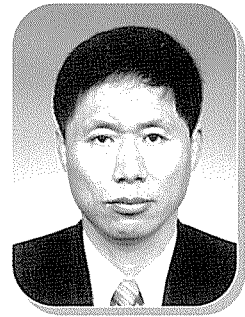


#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 - 포커스 전기 -



포커스전기 | 서정학 | 대표이사

안전관리(安全管理)란 상시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고, 만일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지체없이 강구하는 일이다. 보통 산업안전을 가리키지만, 특히 전기, 그중에서도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기준법·근무안전관리규제·근무보건 관리규제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협력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직장회의의 설치·안전주간에 의한 계몽·재해원인의 분석·재해통계의 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일반 가정에서 남녀노소 아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선(配線; wiring)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원 또는 배전반과 송전반을 포함하여 기계기구(機械器具) 내에 그 밑부분으로 시설된 전선으로, 소세력회로(少勢力回路)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배선기구(配線器具; wiring devices)는 텀블러, 로터리, 폴스위치등 접멀기, 개폐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를 말한다. 또한 콘센트, 플러그, 소켓, 리셉터클, 로제트(rosette), 조인트 박스 등과 같은 접속기(接續器; connectors)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포함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의 최고의 타겟은 뭐니뭐니해도 품질향상, 생산성증대, 브랜드이미지 제고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

미지는 기업과 제품 신뢰도를 높여주며 성공적인 기업의 성장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에 동만산업으로 설립해서 지금에 이른 포커스 전기의 서정학 사장의 앞을 훤히 내다보는 일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살아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4년간을 오직 배선기구, 그중에서도 콘센트, 소켓, 멀티코드류를 중점적으로 생산해 왔습니다만 그리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배선기구만을 고집하며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서사장은 여태까지가 사실 힘든 여정이었음을 은근히 시사하며 말을 이었다. 실제로 포커

스전기가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였다.

회사가 설립되고부터 그 구심점에서 묵묵히 끈질기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온 서사장은 모두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였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훈을 “인화단결, 자기개발, 책임완수”로 설정하고 항상 서사장은 직원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였다. 늘 직원들보다 매일 1~2시간씩 일찍 나와 그날 작업량과 할 일을 챙기고 퇴근도 1시간 정도 더 남아서 그날의 집행된 일과 작업을 정리하곤 하였다. 또 협력업체와 유대를 강화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후방 협력업체와도 윈·윈 체제하에 이끌어왔기 때문에 협조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위의 평이다.

“사실 직원들 한테는 미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묵묵히 불평없이 따라와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며, “우리 공장은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습니다. 따라서 매출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도 없으며 중소기업이 흔히 매달리는 사채도 한푼 쓰지않고 있습니다. 내놓고 자랑할 바는 아니지만 이는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탄탄한 우리 공장의 경영에 원동력이 되고 있지요.” 자랑하기 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서사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러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커스전기도 항상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IMF관리 시절에는 자금이 돌지 않아 애를 먹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항상 “의지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서양 속담을 되씹으면서 이를 악문적도 있었고 씩씩히 서사장은 그 지긋지긋한 때를 회상하는 듯 말했다.

지금은 그런대로 주위와의 협조로 잘 지내고 있지만 IMF시기 말고도 위기의 순간을 맞은 적이 여러번 있

었다고 한다.

“배선기구제조업에 막 뛰어 들었을때 경험부족으로 부도를 맞았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고 곳곳이 슬기롭게 헤쳐나온 것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사장은 늘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자기의 큰 행운이었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지금은 침체된 경기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회상하기도 싫은 그 어려웠던 때를 상기하면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서사장의 모습에서 일종의 불상을 보는 것 같았다.

“전기는 우리 인간이 발명한 막강한 무기이며 동시에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제품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요, 앞으로 행복한 삶의 척도는 양질의 전기제품을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사용하는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전기제품의 기본이 되는 배선기구는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그러나 동시에 안전해야지요.”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긴요한 대목이다.

“앞으로도 계속 한눈팔지 않고 전기제품, 특히 배선기구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제조물책임(PL) 시대에 무결함의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디자인과 친환경성, 시의에 맞는 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생산하겠습니다.” 그의 결의에 찬 마지막 말이다.

